

2023
부천마을미디어
연간보고서

C O N T E N T S

CHAPTER 01

사업소개

2023 부천마을미디어 사업소개	06
사업성과	09

CHAPTER 02

참여단체

2023 부천마을미디어 지도	14
마을미디어 소개	16

CHAPTER 03

모니터링

콘텐츠 모니터링 전문가 총평	22
-----------------	----

CHAPTER 04

활동리포트

38

CHAPTER 05

참여후기

마을미디어 인터뷰	52
마을미디어 참여후기	72

CHAPTER 06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OBS <경인마을라디오>	86
---------------	----



CHAPTER 01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부천마을미디어 사업은

2016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을 거쳐 8년째 달려온 마을미디어를 통해
부천 곳곳의 정보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녹음스튜디오에서 시작한 부천마을미디어는
이제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는 앞으로도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마을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장과의 만남



책!책!책! 확산 활동



숲사랑해 미디어교육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 방송

연간일정

내용	4월	8월	10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모집 공고 32팀 선정 • 오리엔테이션 •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업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미래교육센터 교육자원발굴단 사업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이야기 페스티벌 공개방송 및 부스 운영 • 경기마을미디어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S <경인마을라디오> 참여 12회 				

수상

제5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

(우수활동팀)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최우수콘텐츠)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총간소음>

제6회 미디어창작콘텐츠 <우리동네 ESG이야기>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지원작 공모전

(장려상) 부천시니어멘토스쿨 강현구 <9순 어머니와 퍼즐 맞추기>

OBS FM <경인마을라디오> 이달의 우수콘텐츠 4회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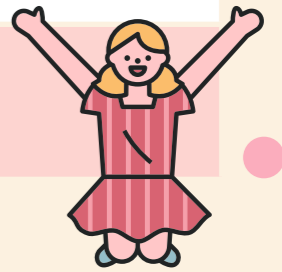
(5월) 소사FM 윤희정, 황영춘 <어린이를 위한 부천의 '마루식당'>
(8월) 어바라 블랙갱, 찡 <평등한 언어생활>
(9월) 희망샘마을라디오 전명희, 권유경, 최이선 <원종역이 생겼어요>
(10월)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김지현, 진복기, 장휘림 <총간소음>

제1회 부천시니어영상제

(우수상) 숲사랑해 전명주 <나는야 나무의사>, 유한대PMC 김훈 <Born again>
(장려상) 부천시니어멘토스쿨 허명애 <은빛 조각들의 이야기>

OBS 시청자채널 <꿈꾸는 U> 방영

(8월) 부천시니어멘토스쿨 강현구 <시니어의 취미 드림>
(10월) 숲사랑해 김영애 <비슷비슷 뽀까뽀까>



오리엔테이션



도시이야기 페스티벌 숲사랑해 부스



소사FM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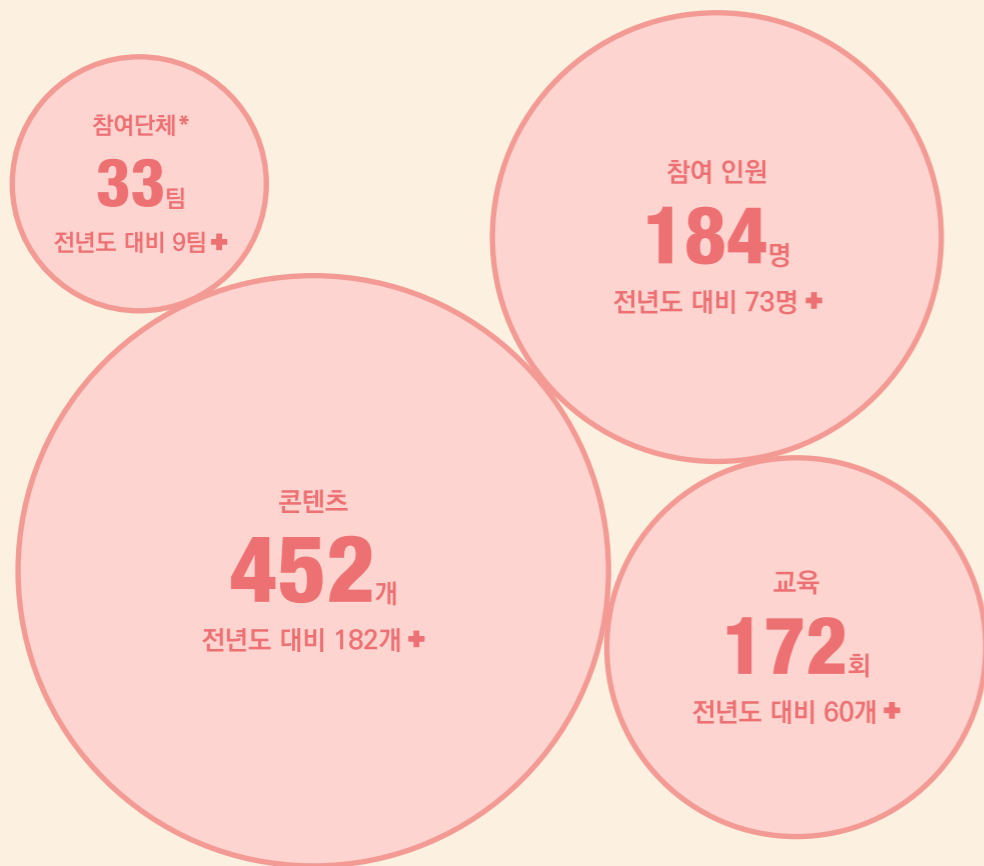


원미마을미디어 미디어교육



부천새날학교 미디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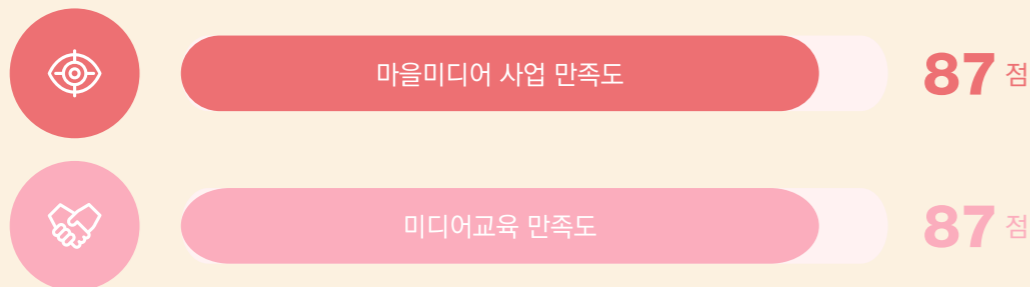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23 부천마을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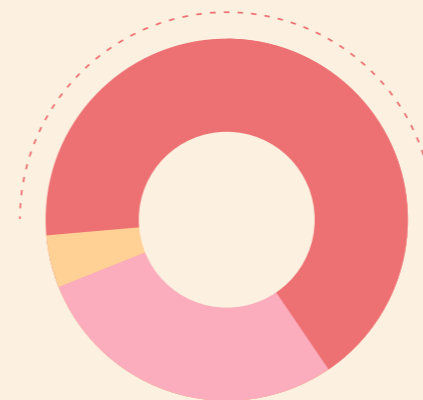
*공모선정 및 협력단체 포함

만족도 조사

참여인원 93명 | 조사기간 2023.10.31~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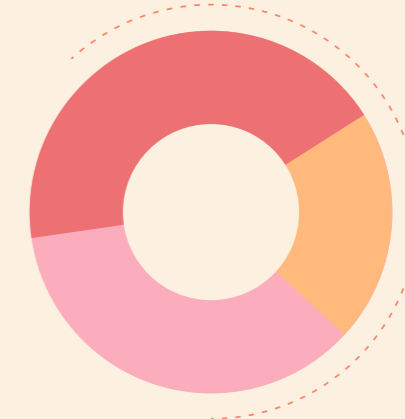


마을미디어 매체 기준



- 영상 **23**팀
- 오디오 **8**팀
- 영상·오디오 **2**팀

단체활동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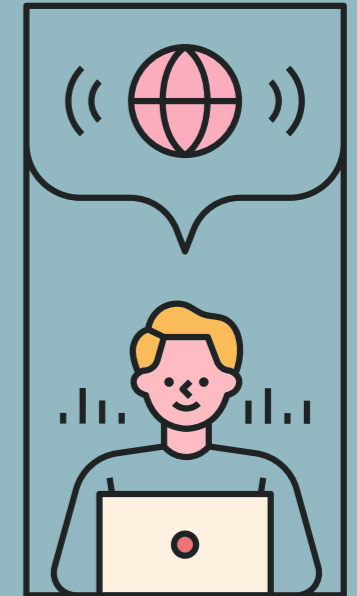
- 1년 이하 **15**팀
- 2~3년 **13**팀
- 4년 이상 **5**팀

참여동기

- 1위 | 공동체 활성화
- 2위 | 지역문제 해결
- 3위 | 마을미디어 사업 경험
- 4위 | 이전에 하던 일과 관련이 깊어서

만족도 높은 지원사항

- 1위 | 교육 멘토링 강사
- 2위 | 미디어 기기 대여
- 3위 | 시민PD 연결
- 4위 | 전문가 활용비



CHAPTER 02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2023 부천마을미디어 지도



오정동

- 상살미사람들
- 희망샘마을라디오

신중동

- 복사골시낭송예술단

중동

- 중동사랑시장
- 유한대PMC

심곡동

- 풀림회
-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 원미마을미디어

부천동

- 뜰작마을미디어
- 부천사람들
- 부천FC1995 대학생 마케터 루키즈
- 흠놀다
- 다문다감2023추진단

대산동

- 부천새날학교
- 에코파트너
- 글한스푼
- 팡팡필름
-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 어바라(어느순간바른소리하게되는라디오)
- PYC
- 송내동계디오

소사본동

- 소사FM

상동

- 모지리
- 상2동재능나눔단
- 숲사랑해
- 마들소리
- 부천시니어멘토스쿨
- 부천오원소
- 책!꼭!톡!
- 음악놀이터
- 키즈공연탐험대

범안동

- 부천미래교육센터 교육자원발굴단

우리동네 마을미디어를 소개합니다


2023년 부천마을미디어는 상반기 공고를 통해 선발된 32개 단체와 미래교육센터 교육자원발굴단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기초 미디어교육을 수료한 복사골시낭송예술단, 부천새날학교, 상2동재능나눔단,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마들소리 외에 한 해 동안 활동한 교육형, 체험형 참여 단체를 소개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마을미디어의 주요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오디오



부천오원소는 세 명의 진행자 복동이 김근희, 옥토끼 김성경, 탁이형 한준탁과 엔지니어 박병철이 모여 부천의 오정, 원미, 소사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만들고 청년들의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 팀입니다. 부천 청년들의 사연을 받아 소개하는 코너 '복동이의 복덕방', 청년의 직업 이야기와 일상을 들여다 보는 코너 '푸른삼', 역사 코너 '동진학당'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이야기하는 육아 아육수는 육아 정보, 키즈 퀴즈, 아빠 육아일기 등을 전달하고 아빠들이 엄마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희망샘마을라디오는 오정동, 원종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서 직접 받은 사연을 읽어 주면서 지역민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할 만한 곳을 소개하고, 지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발로 뛰어서 전해줍니다.






어바라(어느순간바른소리하게되는라디오)는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과 사회문제를 평등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공감하며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청소년의 모든 것을 알려줄께. 서아프리카 문화예술을 들려줄께. 공동체를 꿈꾸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송내동계디오를 들어보세요!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는 전문 배우와 시민들이 함께 창작 작업을 통해 소통하면서 부천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를 '라디오드라마'로 제작합니다.







청년주거협동조합 소통창구로 청년주거환경 관련 토론 및 청년들의 사는 이야기, 하나의 주거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음악놀이터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 마음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노력하는 예술단체 채널입니다.







키즈공연탐험대는 부천을 기반으로 문화를 누릴수 있는 공연과 함께 아이들을 기르며 육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책!꼭!특!은 관내중학교, 공공기관에 일인일처 책쓰기 지도자로 활동하며 책쓰기 운동을 보급하고, 시민작가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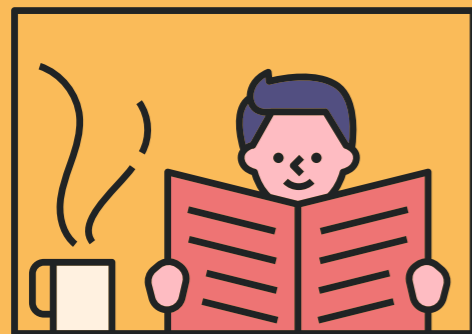
원미마을미디어는 원미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마을의 애향심과 마을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영상

	사람이야기, 마을의 환경이야기, 마을사람들의 활동이야기, 여러 개발로 사라질 이야기들과 풍경들을 포함해 사람들 이야기를 꾸준히 담는 채널입니다.	
	부천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미디어로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부천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노력, 에너지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축구'를 통해 감동 스토리를 전하고 싶은 청년들 부천FC1995는 대학생 마케터 루키즈 8기, 부천FC1995를 응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팬들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소사FM은 부천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며 오늘날 사라져 가는 정과 마음을 나누고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채널입니다.	
	시장상인들의 상품 관련 노하우, 고객들과의 관계, 상인들 간의 우정과 희로애락 등 중동사랑시장의 특색있는 매장과 상인, 행사를 소개합니다.	
	풀림회는 풀림회 작가, 전시장 방문 등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유한대PMC는 유한대에서 배웠던 1인 미디어영상 제작과정을 수료한 역량 있는 구성원들이 심화학습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천의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합니다.	
	지혜를 모으는 마을 '모지리'는 작은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서 부천의 마을 예술가들을 소개(모그린미술관)하고, 송내초 담벼락장터를 진행하며, 명상 등의 소모임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독립서점 '글한스폰'은 브이로그를 통해 함께하는 마을사업 스케치 영상으로 지역사회 내의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천시니어멘토스쿨은 퇴직 전, 후 시니어들에게 봉사활동과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노년 시간을 풍부하고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상삼사람들 협동조합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공동체에서 나온 제품을 소개합니다. 마을축제와 타지역 단체와의 교류사업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홍보합니다.	
	팡팡필름은 부천의 명소부터 소소한 곳까지 부천의 구석구석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에코파트너는 한국어와 이민족 언어로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과 자원순환센터 방문에 대한 내용을 담아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안내합니다.	
	장애인 도예작가의 훽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비장애인과 영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부천동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입니다. 상호 문화교류 활동과 지역의 실천과제 참여과정을 콘텐츠로 표현합니다.	
	숲과 공원 등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설사, 공원 코디네이터,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알리고자 합니다.	



CHAPTER 03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2023 부천마을미디어 사업 제작형 콘텐츠 대상 모니터링 전문가 총평

조사자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감시팀 활동가

I.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1월

2. 모니터링 대상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2023 부천마을미디어 지원사업) 제작형 콘텐츠

유형 ¹⁾	단체명	제작 콘텐츠 수
오디오	PYC	19
	송내동계디오	30
	책!책!책!	20
	어바라(어느순간바른소리하게되는라디오)	22
	음악놀이터	22
	키즈공연탐험대	18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22
	부천오원소	25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31
	희망샘마을라디오	25
영상	부천FC1995 대학생 마케터 루키즈	4
	유한대PMC	17
	모지리	18
	팡팡필름	17
	소사FM	17
	글한스폰	12
	뜰작마을미디어	12
	부천사람들	15
합계	18	346

1) 제작방식이 2가지인 경우 주로 제작하는 유형에 포함시킴

3. 모니터링 방법

- ▶ 부천시민미디어센터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시트지 항목에 맞춰 모니터링
 - ① 부천마을미디어 오디오: 부천마을미디어 팟캐스트 및 제작 단체 자체 캐스트·자체 유튜브 채널 청취
 - ② 부천마을미디어 영상: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유튜브 및 제작 단체 자체 채널 시청

II. 단체별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II-1. 오디오 콘텐츠

① PYC

- ▶ 시즌2 첫 방송에서 진행자들의 자기소개와 PYC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들려줬다. 이미 시즌1이 방송된 터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시즌2를 통해 PYC 방송을 처음 접했을 청취자들을 위해 방송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PYC 시즌2에서는 전반적으로 청취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 ▶ 진행자 4명이 알고 지내며 방송을 진행해온 시간이 긴 만큼 자연스럽게 진행이 돋보인다. 다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게 되는 비속어나 반말 사용, 방송이 진행자들만의 수다로 흘러가는 점 등은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야매야매식물병원'에서 청취자의 식물 고민에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며 전문성을 발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비슷한 반려식물을 키우는 청취자거나 반려식물을 키우려고 계획 중인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 ▶ 청취자들의 사연이 진행자들의 고민은 아니다 보니, 가벼운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청취자 사연을 웃음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해 유의미했다.

② 송내동계디오

- ▶ 방송에 주로 출연하는 청소년 출연자의 꾸미지 않은 솔직한 생각이 재미와 공감을 자아낸다.
- ▶ 발달장애 자녀 보호자, 지역의 난민, 이주배경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려 시도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 ▶ 공개방송 <슬기로운 월경생활>에서 '월경'을 여성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 진행자가 월경에 대해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유의미했다. 다만 월경이나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의학 분야 전문가가 출연하지 않아 아쉽다.
- ▶ 공개방송에서 음질이 고르지 않아 청취에 불편함을 안겨줬다. 향후 방송에서 고른 음질을 구현하는 데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역사적인 사건을 다룰 때 표현에 좀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3 민주화의 봄 이야기> Vol.1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방문했던 장소 중 기억에 남는 곳을 이야기하던 중, 진행자가 "지금은 5·18국립묘지가 돼서 너무 다행인데, (중략) 30년 전에는 '망월동 묘지'라고 했다", "꼭도들이 묻히는 곳이 바로 망월동 묘지였다", "이제는 이분들이 유공자가 되어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세력을 비롯한 국가폭력이 민주유공자들을 '꼭도'로 규정한 것인데 이런 세부설명 없이 "아까 해설사도 말씀하셨듯이, 꼭도들이 묻히는 곳이 바로 망월동 묘지였다"고 말하게 되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더불어 <2023 민주화의 봄 이야기> Vol.3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진행자가 "아직도 4·3은 이름이 없다"며 "4·3폭동', '4·3반란', '4·3사건'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다"고 했는데, '4·3폭동'이나 '4·3반란'은 민주화 이전 국가폭력에 의한 잘못된 규정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현재는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쓰지 않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런 표현으로 불리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발언이며, 4·3을 왜곡하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 출연자의 잘못된 발언을 진행자가 바로잡아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2023 민주화의 봄 이야기>에서 한 청소년이 기억에 남는 장소를 이야기하던 중, "뒀든 지나치면 좋은 건 없는 것 같다"며 "독재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 (중략)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는데, '독재'는 정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행위이므로 이런 발언은 진행자가 바로잡아줬다면 좋았을 것이다.

③ 책!책!책!

- ▶ 방송을 듣는 팟방 화면에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별칭이 나오고, 방송 끝 무렵에 출연자들이 자신의 별칭을 말하며 인사를 하긴 하지만, 방송 시작 무렵에 진행자와 보조진행자들이 짧막하게 자기소개를 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다.
- ▶ 방송이 책을 읽은 이들이 들으면 공감하기 쉬운 내용들로 이뤄진 만큼, 방송 전 청취자들에게 도서를 소개하고 미리 읽고 오면 좋다고 안내하면 보다 유익할 듯하다.

- ▶ 책 속 인상 깊은 구절을 들려주며 이야기할 때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청취자들에게도 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쉽게 공감하며 들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향후 방송에서도 이러한 진행방식을 잘 살린다면 책을 읽지 않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 출연자들이 집필과 출판에 깊이 관여한 책인 만큼 내용뿐만 아니라 표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는데 영상이 아닌 오디오 이기에 표지에 대해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지보다 소재와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하면 청취자의 집중도가 더 높아질 듯하다.
- ▶ 방송의 진행방식이나 주요내용을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 진행자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대목에서 청취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④ 어바라(어느순간바른소리하게되는라디오)

- ▶ 진행자 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서로의 목소리가 겹쳐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바라'의 경우 그런 단점 없이 진행자 4인의 자연스러운 진행이 돋보인다.
- ▶ '구해줘 콘텐츠!'의 경우, 영화나 책의 줄거리를 소개한 뒤 진행자 4인이 해당 영화나 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데 영화나 책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진행자들이 해당 영화나 책을 접하지 못한 다른 청취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 특히 '구해줘 콘텐츠!'에서 단순히 영화나 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영화나 책의 내용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함께 다룬 점이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어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소개하며, 남성 가장의 그늘 아래 보호받거나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 성적으로 소비되는 미모의 어린 여성, 주체적 행동이나 성장, 서사 없이 관습적으로 그려지는 식상한 여성 캐릭터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매우 유의미했다.
- ▶ '어바라'에서 기성언론의 후속 취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다룬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성평등'과 '성소수자' 용어가 배제된 교육과정은 이미 지난해 연말 확정되었고, 임신중단약 도입은 무산된 채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성언론의 후속 취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어바라'는 시즌4에 이어 이번에도 해당 사안을 후속보도방식으로 다뤘다.
- ▶ 지금과 같이 기성언론이 관심 갖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건들의 이후 이야기를 '어바라'에서 지속적으로 다뤄 주면 좋을 듯하다.

⑤ 음악놀이터

- ▶ 클래식이나 가곡 등 전문적인 분야에 다가가기 쉽게 이야기를 잘 들려줬다. 다만 방송 중 언급되는 각종 클래식과 가곡 등에 대해 제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곡의 일부를 들려준다면 청취자의 이해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진행자와 출연자 2명이 동시에 말할 때, 진행자와 남성 출연자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리지만 여성 출연자 목소리는 다소 작게 들려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음악 관련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음악 입문자에게는 다소 진입장벽이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입문자를 배려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면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제 이외의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언급될 때가 더러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⑥ 키즈공연탐험대

- ▶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 들려주는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은 오프닝은 언제나 유의미하다. 향후 방송에서도 이런 장점을 잘 살려나가기 바란다.
- ▶ 진행자가 방송이 처음인 어린이 출연자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청취자의 이해를 도왔다.
- ▶ 어린이 출연자들의 경우 방송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곤 하는데 방송 대부분이 어린이 출연자보다 어른 출연자 발언으로 구성된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어린이들이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성해서 어린이 출연자의 참여율을 높이면 좋을 듯하다.
- ▶ <문화다양성!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의 경우, 음향 문제로 내용이 들리다 말다를 반복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분량을 줄이더라도 안 들리는 부분을 아예 제외하거나 다시 녹음했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였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전반적으로 다양한 공연 정보들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자녀와 문화생활을 하려는 부모 청취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 ▶ 청년실업, 황혼재혼, 데이트폭력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실감나는 라디오드라마로 조명한 점이 유의미했다.
- ▶ 특히 라디오드라마를 접하기 어려운 요즘,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가 또렷한 발음으로 어울리는 배경음악과 함께 전달돼 자연스레 귀 기울이게 되며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 방송의 절반은 드라마, 절반은 진행자와 배우의 이야기로 구성해 재미와 정보 전달 모두 잘 살렸다.
- ▶ 실감나는 상황 전달을 위해 라디오드라마 도중 폭력적인 용어나 비속어가 사용돼 아쉬움을 남겼다.
- ▶ 유튜브로 방송되는 만큼, 드라마를 들려줄 때와 진행자와 배우들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배경화면을 달리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배경화면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은 단조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 ▶ 라디오드라마 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계 수치를 들려줄 때 언제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라는 점을 덧붙이면 자료 신뢰도를 높이고 청취자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⑧ 부천오원소

- ▶ 진행자 3인의 친밀도가 높아 흐름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중심을 잡아주는 택이 님의 진행과 방송을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복동이 님의 유머, 적재적소에 등장하는 옥토끼 님의 재치 있는 발언이 방송을 더욱 매끄럽고 촘촘하게 만들어준다.
- ▶ 사연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진행자가 사연자를 닮는 식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행자들이 사연과 사연자에 대해 보다 사려 깊은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청취자들이 보내준 사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송인 만큼, 방송에 앞서 청취자들의 사연을 충분히 받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2회 방송에서는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이 아니라 커뮤니티 '리멤버'에 올라온 내용을 각색한 내용을 다뤘는데 해당 사연자에게 진행자들이 고안한 해결책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아쉬움을 남겼다.
- ▶ '조선의 여성 독립운동가 특집'은 가장 유의미한 방송이 되었다. 다만 4회에 그쳐 아쉬웠을 청취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

이다. 방송에서 내년에 해당 내용의 방송회차를 늘리거나 아예 새로운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2024년 부천오원소의 '조선의 여성 독립운동가 특집'을 기대해본다.

- ▶ '조선의 여성 독립운동가 특집'인 만큼 역사적 사실과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이때 진행자 탁이 님을 중심으로 한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이 돋보였다. 진행자 탁이 님은 독립운동가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운동 이력을 근거로 색깔을 덧씌워 독립운동 이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남편 김원봉 선생의 월북으로 인해 박차정 지사의 독립운동이 폄훼되면 안 된다고 한 점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

⑨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 ▶ 진행자 3인의 진행이 자연스러워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공감할 만한 내용이 다수 등장해 재미를 준다. 다만 진행자 3인의 친밀도가 높다 보니 방송 중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진행자들은 재미있는 상황인데 청취자는 공감하지 못하거나 웃음으로 발언이 정확하지 않게 들려 청취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듯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 '이게말이죠, 아육수 옆광고'는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제품, 장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유익했다. 다만 일부 제품을 소개할 때 청취자에게 제품이 보이지 않는 만큼 보다 상세한 설명이 이뤄진다면 이해하는 데 좀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기성매체에서는 '고달프고 힘든 육아의 현실'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달리 아빠육아일기는 육아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름다운 가치를 부각하거나 육아와 관련된 소박한 일상을 담백하게 담아내 유익했다.
- ▶ '키즈퀴즈'의 정답 댓글과 이전 방송에 달린 댓글까지 청취자 반응을 충실히 전해주고, 알맞은 답변까지 해주며 청취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돋보였다.
- ▶ 육아를 잘하기 위해 정해진 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진행자들이 좋은 육아 방식을 서로 자연스럽게 나누고, 청취자의 의견도 반영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들려줘 더욱 의미가 있다.
- ▶ '아빠는 지금도 육아 중, 아빠잉~'이라는 마지막 인사는 운율과 말의 맛을 살려 소소한 재미를 안겨준다.

⑩ 희망샘마을라디오

- ▶ <사연있는 마을라디오>는 진행자 우남과 불량공주의 자연스러운 진행이 돋보이지만, 사연을 읽을 때 버벅거리는 순간이 더러 있어 청취자가 사연을 이해하고 몰입하기 어렵게 만들곤 한다. 방송 전에 사연을 미리 충분히 읽어보고 진행한다면 방송 중 버벅거림이 줄어들어 청취자가 사연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행자들이 방송 전에 소개할 이야기와 사연에 알맞은 애깃거리를 미리 준비한다면, 방송이 좀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 <능소화의 만나보고서>는 '자격증'을 주제로 한다고 해서 자격증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이 유익미했다. 또한 진행자가 "관심 있는 분야나 미래의 비전 있는 분야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보편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개인을 초대해 보유한 자격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나보고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접근방식의 신선함을 엿볼 수 있다.
- ▶ <겸이랑 이모랑 놀러갈까>는 각종 행사에 대한 안내가 매우 상세해서 유익하다. 진행자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싶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 안내해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영상이라면 자막으로 보완할 수 있겠지만 오디오인 만큼 정확한 발음과 또렷한 소리로 전달하는 데 좀더 신경 써야 할 듯하다. 어린이의 발음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 라면 어른 진행자가 내용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반복해주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 <기자수첩을 펼쳐라>는 매회 진행자들의 실감나는 콩트가 재미를 안겨준다. 또한 진행자 씨니 님과 진달래 님의 대본이 아주 촘촘하게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틈없이 짜임새 있고 자연스러운 진행이 돋보인다.

II-2. 영상 콘텐츠

① 부천FC1995 대학생 마케터 루키즈

- ▶ 부천에서 활동 중인 여성 풋살팀, 부천FC1995 통합축구팀, 가톨릭대학교 중앙 축구동아리 '킵오프', 부인중 풋살동아리 등 다양한 축구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영상에 담아냈다.
- ▶ 특히 역동적인 훈련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흥미진진하게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선수들의 훈련 내용에 맞는 전문적인 영상 구성으로 시청자의 집중도를 끌어올린 점도 평가할 만하다.
- ▶ 부천FC 선수들의 이름과 발언은 보는 내내 자막을 제공해 불편함이 없었다. 다만 부천에서 활동 중인 여성 풋살팀, 부천

FC1995 통합축구팀, 가톨릭대학교 중앙 축구동아리 '킵오프', 부인중 풋살동아리 등 다양한 축구팀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의 이름이나 발언은 자막으로 별도 표기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② 유한대PMC

- ▶ <부천의 둘레길 소개>는 비슷한 풍경의 둘레길을 영상미로 구현해내는 데 한계가 있을 텐데도 적절한 영상 구성과 자세한 설명으로 둘레길이 가진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 ▶ <부천의 둘레길 소개> 일부 영상의 경우, 자막이나 내레이션과 영상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 시청하는 데 불편했다. 또한 둘레길의 다양한 풍경을 전부 담아내려다 보니 화면 전환이 잦고 여러 가지 화면 전환 효과가 나올 때도 있어 이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부천재래시장탐방>은 부천의 여러 시장의 상인회장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목소리로 시장의 장점을 직접 들려줘 생생함을 더했다.

③ 모지리

- ▶ 현장스케치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특정 행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자막 등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이다. <등곳길 음악회 ♥ 어린이날 기념 ♥ 어른들의 재롱 @ 송내초>의 경우, 어린이날 행사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된 행사인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 ▶ <등곳길 음악회>는 마을 예술가를 소개하고 마을 음악회를 선보이는 '모지리' 특성에 걸맞은 내용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수준 높은 공연 내용 덕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시청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 ▶ 영상에서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매끄럽지 않은 점이 보였다.
- ▶ <정오의 느티나무 음악회>는 영상과 소리가 조금씩 어긋나며 맞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노래를 부를 때 기타 소리가 작게 들렸다. 노래용 마이크 외에 악기용 마이크를 별도 설치하여 수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 부천 송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생생하게 잘 전달했다. <세상에서 가장 야(夜)한 마을시장 ~ 송담장>에서는 송담장에서 펼

쳐진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을 생생하게 담아내, 송담장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장터를 넘어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잘 전달했다.

- ▶ 일부 콘텐츠 제목은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야(夜)한 마을시장 ~ 송담장>의 경우, '세상에서 가장 야한'이라고 쓰며 '밤 야'라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별도 표시했다. 그러나 '천하게 아리따다'는 뜻의 '야하다'와 소리가 같다는 공통점으로 지은 제목에서 의미도 재미도 찾기 어려워 아쉬움을 남겼다.

④ 팡팡필름

- ▶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여 시청자들이 직접 해당 장소에 방문한 듯한 느낌을 준 점과 영상을 통해 시청자에게 마음의 안식과 여유를 주는 시간을 선사한 점이 돋보인다.
- ▶ 영상 소재와 주제에 따라 '세로형' 혹은 '가로형'의 촬영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 ▶ 특정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의 경우, 자막으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시청자에게 보다 유익할 것이다. 일례로 <한국에 나타난 푸른 눈의 천사, '펼박'을 아시나요?>에서 펼박에 관한 소개는 제목의 "한국에 나타난 푸른 눈의 천사"가 전부인데, 영상에서 자막이나 내레이션으로 펼박이 어떤 인물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상 시청 후 펼박기념관 방문을 계획하는 시청자를 위해 이용시간이나 휴관일, 관람료 등과 같은 기념관 관련 정보도 안내했다면 유익했을 것이다.

⑤ 소사FM

- ▶ 진행자가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출연자의 적절한 답변을 유도하고, 약간의 재미까지 더해 방송 내내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한 점이 돋보인다.
- ▶ 지루할 틈이 없도록 재미있는 요소를 곳곳에 배치한 점이 돋보인다. 30초 장단코너에서는 출연자들이 시간에 맞춰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하는 것, 경품 추첨 시 나오는 환호 소리 등의 효과음, 즉석에서 감정카드를 뽑아 해당 표현에 맞는 이야기를 순발력 있게 말하는 것 등이 재미를 주었다.
- ▶ 여러 명의 출연자가 등장할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이 번갈아서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부 각도에

서 촬영한 영상은 초점이 잘 맞지 않아 흐릿한 화면이 지속돼 시청하는 내내 불편함을 안겨준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진행자와 출연자의 이름과 같은 역할을 안내하는 자막을 별도로 띄워준다면 시청자의 원활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 부천에서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출연자들이 매회 등장하는 만큼, 출연자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할 때 화면에 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띄워주거나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자막을 넣어준다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 출연자들에게 진행방식 등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탓인지, 마이크를 충분히 가까이 잡지 않아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몇몇 코너에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모습이 더러 관찰되기도 한다. 방송 전 출연자에게 진행방식 등을 충분히 안내하면 방송이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⑥ 글한스폰

- ▶ 브이로그 형식으로 내레이션 없이 최소한의 자막만 사용해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오히려 화면 효과와 내레이션, 자막 등 구성요소가 복잡한 영상보다 피로감이 덜했다.
- ▶ 희망도서바로대출을 안내하는 영상에서는 희망도서바로대출을 처음 접한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로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아 유익했다. 다만 웹페이지 시연에서 내레이션뿐만 아니라 자막도 함께 넣어줬다면 이해하기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다.
- ▶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막으로 별도 표기한다면 훨씬 눈에 잘 띄어 강조 효과를 살리고 내레이션 없는 영상의 단조로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 별도 내레이션 없이 주로 영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 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막 크기를 작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자막으로도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만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기를 좀더 키우는 게 좋을 듯하다.

⑦ 뜰작마을미디어

- ▶ 뜰작마을미디어는 현장의 모습을 가공 없이 영상에 그대로 담아내 생생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자 장점인데, 더불어 소재

선택도 신선함과 재미를 안겨준다. <스크린타임 메이킹영상>의 경우, 인디고을영화학교에서 영화를 만드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담아내 웃음을 자아냈다.

- ▶ 자막 표기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타임 메이킹영상>의 경우, 영화를 기획하고 만드는 풍경을 보여주기 전 영화 제작을 앞두고 어린이 세 명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때 자막을 넣어줬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쓰레기 없는1박2일>에서도 출연자들이 쓰레기 없는 1박 2일에 도전하기 전 논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대화에 자막을 넣어줬다면 내용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도도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 ▶ 출연자가 여럿이었을 때, 출연자 목소리 크기에 따라 말이 더 잘 들리고 잘 안 들리는 차이가 있어서 아쉬웠다.
- ▶ 영상으로 담아내기 복잡한 장소를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잘 담아냈고, <부천자원순환센터탐방기>에서 센터 구석구석의 모습을 클로즈업 등 적절한 영상 효과를 사용해 잘 전달했다.
- ▶ <우리 동네 큰나무를 찾아서> 1~3편에서는 수관폭과 같은 어려운 용어의 뜻이나 보호수 지정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데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⑧ 부천사람들

- ▶ 부천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느끼게 하는 소재가 많아 유익미했다. <춘의동 동네 텃밭 농사 여는날(시농제)-이상한 지주와 꿈꾸는 소작농>의 경우, 주민들이 한데 모여 자기소개를 하고, 농사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듣고, 필요한 물품을 받은 뒤 서로 인사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요즘 주민들이 한데 모이는 모습을 보기가 드문데 해당 영상 속 한데 모인 주민들의 모습에서 공동체성을 엿볼 수 있어 신선함을 안겨줬다.
- ▶ 전반적으로 영상 편집과 자막 삽입이 매끄럽게 이뤄진 덕분에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 ▶ 부천의 의미 있는 행사나 장소를 소개할 때는 영상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겠다. <꼬원197 1주년 기념 반나절 분식 & 파티>의 경우, 반나절 분식이 단순히 분식을 나누고 판매하는 행사가 아니라 '꼬원197 1주년' 기념행사인 만큼, 꼬원197이 지난 1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간략히 정리해주는 내용이 자막으로라도 소개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골목 공유냉장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상을 처음 보는 시청자의 경우 어떤 단체가 어떤 의미로 진행되는 활동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영상에서 단체와 공유냉장고의 의미를 소개하고 공유냉장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면 활동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III. 모니터링 결과

1. 주제 및 소재

- ▶ 부천마을미디어 방송의 주제 및 소재는 △부천·마을 △생활정보 △교육 △문화 △가족·육아 △정치·사회 △노동·경제 △성·인권 △건강·안전 △기타 등 총 10가지로 분류했다.
- ▶ 부천마을미디어 방송인 만큼, '부천·마을'에 해당하는 주제가 많았으며, 부천의 생활정보와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내용도 자주 다뤄 방송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부천·마을 △생활정보 △문화 등의 3개 주제는 2023년 부천마을미디어 방송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 및 소재이다.
- ▶ △교육 △문화 △가족·육아 △정치·사회 △노동·경제 △성·인권 △건강·안전 등 7개 주제는 2023년 부천마을미디어 방송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빠육아수다 아육수가 '가족·육아' 주제를, '어바라'가 '성·인권'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긴 했다. 하지만 부천마을미디어 전체 방송을 감안할 때 7개 주제가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 2024년에는 △부천·마을 △생활정보 △문화 등 3개 주제에만 편중되지 않고, △교육 △문화 △가족·육아 △정치·사회 △노동·경제 △성·인권 △건강·안전 등 7개 주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방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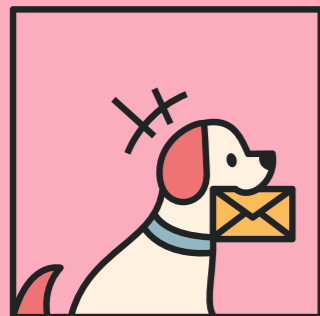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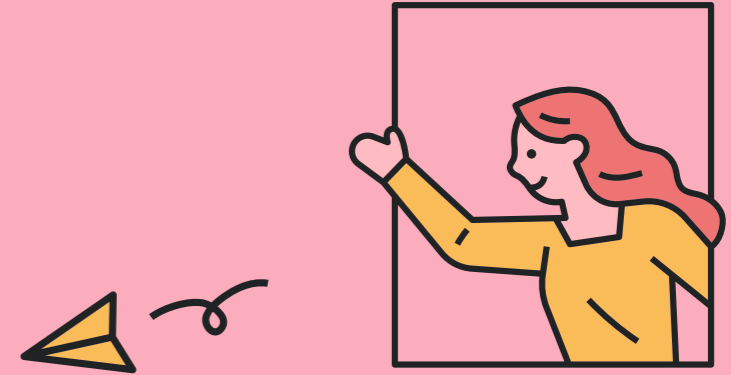
2. 방송언어

- ▶ 진행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출연자에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고, 'OO쌤'이나 'OO 학생' 등으로 호칭도 섞어 쓰는 모습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진행자도 모르는 사이에 반말을 사용한 것이겠지만, 진행자가 존댓말을 제대로 사용해 출연자를 존중하는 모습과 시청자에게 예의를 갖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더 좋을 것이다.
- ▶ 헛갈리거나 알쏭달쏭한 상황에 '아리까리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마약국수', '마약김밥' 등 음식에 '마약'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 ▶ '기분이 좋다'를 '텐션이 올라간다'로, '경치' 혹은 '경관'을 '뷰(View)'로, '부인' 혹은 '아내'를 '와이프'로, '경력'을 '커리어'로, '냉소적이다'를 '시니컬하다'로, '명소'를 '핫플레이스'로, '판매자'를 '셀러'로 표현하는 등 우리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도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 ▶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 청취자와 시청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중요하지만, 부천마을미디어 방송이 '방송'인 만큼 그에 못지않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23년 부천마을미디어방송에서 이런 부분이 자주 발견돼 아쉬움이 남는다.

3. 인권감수성

- ▶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임에도 '여직원' 혹은 '여학생'과 같이 성별이 언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성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유독 여성일 경우에만 직업이나 호칭 앞에 '여' 접두사를 붙이는 등 불필요한 대목에 '여'를 습관적으로 붙여 말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MZ세대'를 언급한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 이런 식의 세대 구분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출생연도에 따른 세대구분법으로 일반화하는 것으로, 세대 간 갈등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
- ▶ 출연자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이야기 중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중략) 저는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분들보다 담배 피우는 분들이 더 싫거든요"라며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 성소수자와 담배 피우는 사람을 좋고 싫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해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흡연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흡연자에 대한 혐오·차별이냐?"며 동성애를 흡연에 비유하는 혐오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따라서 앞선 출연자의 발언 역시 정경희 의원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인다.
- ▶ 또 다른 출연자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이야기 중 "아이들은 똥똥하다고 놀리는 게 아니라, 그저 똥똥하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어른의 기준에서 볼 때만 나쁜 말일 수 있다", "똥똥하다는 말 외에 표현할 다른 말을 몰랐던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쉽게 폄평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 ▶ 청취자와 시청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시민들의 인식수준 역시 날로 높아지는 만큼, 부천마을미디어 방송이 '재미'뿐만 아니라 '높은 인권감수성'에도 중점을 두고 제작돼야 할 것이다.



CHAPTER 04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2023 도시이야기 페스티벌
이야기 스테이지

4개 테마로 진행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현장 스케치

이정민
부천마을미디어 취재기자단

2023년 도시이야기 페스티벌 '말걸음을 잇다'의 개막행사가 10월 22일 일요일 상동 호수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상동 호수공원 야외무대 '이야기 스테이지'에서는 부천마을미디어 주관으로 4개 테마로 진행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부천에 말걸기'가 경쾌한 오픈닝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은 '어바라(어느순간바른소리하게되는라디오)'의 블랙깡 님과 부천오원소 한준탁 님이 맡았습니다.

첫 순서에는 소리로 듣는 연극을 제작하는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팀이 출연하여 라이브로 라디오 연극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작품은 요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연극이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기도 얼마나 리얼하게 잘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라디오 연극의 매력은 대사, 음향만으로 전달하기에 숨소리, 목소리로 연기에 더 몰입할 수 있고 상상을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라디오 연극뿐 아니라 실제 연극무대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영상을 제작하는 '부시멘(부천시니어멘토스쿨)'의 순희 님과 병현 님이 나오셨습니다. 부시멘은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2023년 현재 10기가 수료했고, 회원 16명이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노인영화제 우수상을 수상하고, KBS, MBC 등 공영방송에 여러 번 소개가 되었으며 부천시 소규모예술단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님은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취미활동이 되었고, 병현 님은 30년 전부터 취미로 영상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영상전문가가 되어 강사로도 활동할 정도로 실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초대 손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연팀 '키공탐(키즈공연탐험대)'의 변설 님과 소영 님입니다. 변설 님은 0세~7세 공연보다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면 어떤 공연들을 볼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소영 님은 예술가, 청소년, 협력교사들이 함께 청소년극을 위한 연구

활동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공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천 지역의 청소년들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낭독극도 하다가 나중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도 해보는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0세 공연>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들도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게 다양한 공연, 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초대 손님은 어바라의 당근 님과 정 님이 함께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평등 한 꼬집'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어바라는 우리 주변의 이슈를 다루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어바라 팀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이 법률은 1999년 발의되어서 22년만인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된 법으로 얼마 전 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잠정조치 기간 연장이 그 내용입니다. 여전히 다양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되지 못한 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 스토킹 처벌법이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정 님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있고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인천 남동구에서 또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 대신 "시도하면 스토킹 범죄다"라고 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 마을미디어 팀들의 딱끈딱끈한 이야기들로 함께 하다 보니 한 시간이라는 공개방송이 바람처럼 훑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도시의 이야기가 된다"는 말처럼 시민들이 만들고 시민들이 함께 보고 듣는 부천마을미디어가 앞으로도 우리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 희망샘마을라디오
첫 공개방송

원종동 도시재생 이모저모

이정민
부천마을미디어 취재기자단

희망샘마을라디오는 코로나로 인해 1년 3개월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지난 5월 말부터 다시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날은 2023 희망샘마을라디오 첫 공개방송 '원종동 도시재생 이모저모'가 원종중앙시장 내 시골벽적 원종마을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공개방송의 주제는 '도시재생'이었습니다. 재건축이나 뉴타운과 달리 기존의 마을 안에서 지키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다시 한번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슈를 풀어 놓는 작업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시골벽적 원종마을, 이 공간의 이름처럼 시골벽적했던 추억들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개방송은 1부에서는 겸이모 권유경 님의 진행으로 원종동의 도시재생을 처음부터 함께 해온 박원화 어울림 네트워크 회장님, 김이삭 아이삭 대표님, 모규대 중앙시장 상인회장님이 초대손님으로 함께했습니다. 초대 손님들은 각자 인생에서 시골벽적했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장님은 "원종중앙시장이 33년 되었는데 13년 전 <나는 전설이다> 드라마 찍던 그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시골벽적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원종동 도시재생의 공간으로는 고속도로 옆 수국이 핀 부지와 원종중앙시장의 중정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정 공간은 도시재생의 핫한 공간적 자산으로 김장 나누기, 쌀 떡국 나눔 행사, 시골벽적 포차 등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정감 나누기 좋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이삭 대표님은 "중정 공간이 젊은이들의 독특한 패션 성지가 되고, 옥상을 정비해서 옥상 콘서트를 하고 청년들이 모이는 음악의 성지가 되었으면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공개방송 1부는 도시재생의 부분 꿈을 안고 더 열심히 활동하자 결의와 앞으로의 바람과 기대감을 쏟아내는 시골벽적 수다로 마무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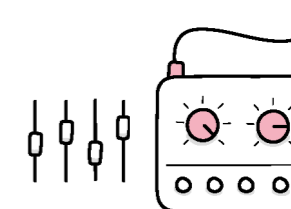
이어진 2부는 능소화 전명희 회장님의 진행으로 초대 손님은 도로시 사장님, 남도젓갈 사장님, 원종중앙시장 매니저님이 함께했습니다. 2부 초대 손님은 젊은층들의 원종동으로의 유입 이끌어내기, 마을지도 작성 이야기와 시

골벽적 포차를 정기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도로시 대표님은 외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원종동 주민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오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화합이 잘 되는 장점을, 매니저님은 1인 상점들이 많아서 거점 공간 활동이 있을 때 가게를 봐 줄 일손이 부족해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현대화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힘들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남도젓갈 사장님은 시장상인회가 형성되려면 60점포 이상이 필요하고 노점상도 함께해야 하는데, 노점상에 수도, 전기 시설 확충이 안 되는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부천의 소규모 외곽 시장으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시골벽적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시작으로 시장 홍보 효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으로 유명한 통인시장, 망원시장처럼 원종중앙시장도 도시재생의 성공 케이스로 벤치마킹 하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희망샘마을라디오! 앞으로는 마을신문을 다시 발간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지금처럼 마을라디오도 꾸준히 업로드할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공개방송 및 영상제작 등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 활동을 진행할 희망샘마을라디오의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탁이랑! 복동이랑! 옥토끼!가
함께하는

2023 부천오원소 공개방송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천 청년주간에 함께한 부천오원소 공개방송은 <부천오원소, 부천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라는 주제로 9월 23일 중앙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시민들과 마을미디어에 호기심을 느끼는 시민들, 응원하는 활동가들이 함께한 방청석은 공개방송의 열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 부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이자 바이주나의 대표 김준아 님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술할 자유, 문턱 없는 문화예술'을 꿈꾸며 주식회사 바이주나라는 회사를 만들고 극단 <두번째 계획>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예술가를 양성하고 문화생활 향유권을 위해 부천시 청년극단으로는 처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천청년정책협의체 문화산업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아 님은 청년정책에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이 만 39세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외된 청년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희망사항이라 함께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 손님은 부천청년정책협의체 육아출생분과에

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지'의 사무국장 안소희 님이었습니다. 안소희 님은 "부천시의 출산양육정책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고민하며 어려운 출산양육정책을 배워 좀더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가지'란 한부모가족지원을 줄인 말이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한가지’의 활동은 한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개선과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립을 지원하는 일, 그 과정에서의 상담과 필요시 임시거처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교육과 복지 차원의 지원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전했습니다.

안소희 님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정서적 유대감과

책임을 다했을 때의 보람을 공유하며 실제로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 진한 울림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안소희 님은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미 출생한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책의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유튜브 채널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나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주소나 연락처가 있으니 문의하면 전국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천오원소 진행자들이 '한가지'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약속하며 공개방송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명희
희망샘마을라디오

송내동깨디오 시즌2
공개방송

이주배경 청소년 카렌족 친구들의 이야기 '카톡!'

이정민
부천마을미디어 취재기자단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0월의 둘째 주 토요일 송내 어울마당 3층 송내청소년센터 행복놀이터는 반가운 손님의 방문으로 왁자지껄 시끌벅적 잔치집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날 송내동깨디오 시즌2 공개방송에서는 난민 자격으로 우리 사회에 함께하게 된 미얀마의 소수민족 '카렌족'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하여 한국생활 정착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출연자는 김보라, 김도영, 김채운 3명의 카렌족, 경기글로벌센터의 오순강 활동가, 뮤배, 야쿠바, 살리푸가 참석하고, 진행은 박준서 님이 맡았습니다.

방송은 카렌족 친구들의 '내가 바라는 세상' 합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질문에 활동가 오순강 님은 "2016년도부터 미얀마, 태국에서 카렌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난민들을 재정착 난민이라고 부른다. 재정착 난민은 1년에 30명 정도만 받고 있고, 1~3기는 인천에 거주하는 오늘 출연한 카렌족들이고 4~6기는 김포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순강 님은 현재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들의 고학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난민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이 친구들을 만나 경계를 했는데 같이 수업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는 가족처럼 친해졌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는 4학년 친구로 "자음과 모음도 전혀 모르는데 눈치가 빨라서 문제도 눈치로 푸는 것을 보고 힘들었지만 집으로 찾아가서 무료봉사로 한국어 교육을 시켰더니 5개월 만에 한국어를 읽게 되고 스스로 책도 읽는 모습에 굉장히 뿌듯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에 이주하기 전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보라 님은 "태국 난민촌에서 태어나 다섯 살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학교가 없어서 친구들과 놀 재미있게 놀고 가끔 집안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배워도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많이 없어서 부모님도 공부에 집착하지는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같은 아시아권이라고는 해도 고국과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차이가 클 것 같은데,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라고 진행자가 묻자 도영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살던 곳에서는 저녁 10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있어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고 밤에 갑자기 아파도 허락 없이는 응급실도 갈 수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채운 님은 "한국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먹을 음식이 다양하고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 통화도 가능하고 핸드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잘 찾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게임도 할 수 있어 좋다. 불편한 점은 한국어 공부와 학교 공부가 너무 힘들다. 늦은 시간까지 들리는 소음이 조금 힘들고 한국은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복지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신청하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기글로벌센터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한국어 교육을 하고 오순강 님이 영상 편집도 알려주어서 봉사활동 영상 대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화책 읽기로 한글을 쉽게 알려주고 저녁에도 언제든지 물으면 알려주는 선생님의 열정이 우리 청소년들의 한국어 실력 비법인가 봅니다. 송내청소년센터의 문화예술강사이신 야쿠바, 살리푸 선생님도 멀리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카렌족 친구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려고 '이 워니 디센자', 즉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차별 없이 서로를 돌봐주면서 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송내청소년센터 뮤배 님은 예전에 만났던 카렌족이 선물해준 옷을 입고 와서 카렌족과의 지난 추억을 얘기했고, 오늘 함께해 준 카렌족들의 음악과 춤 등 끼를 더 살릴 수 있는 예술활동 지원을 센터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내청소년센터 강사님과 카렌족 청소년들의 멋진 문화어울림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우리 카렌족 친구들의 한국 생활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 지금처럼 구김없이 밝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는 곳이 바로 송내선 대표님이 계신 경기글로벌센터입니



다. 세심한 관찰로 무엇이 필요인지 파악하여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었고 어른들의 노동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방치되다가 우리나라 학교에 다니다 보니 문해력이 안 되어서 유명이 되는 게 안타깝워서 2022년 삼성꿈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 인성, 감성, 인권 교육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글로벌센터가 우리 카렌족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 함께한 카렌족과 같은 재정착 난민들, 다문화가정,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 모자이크 가정, 무지개 가정, 이주민 가정,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과 사할린 이주 동포, 일반 난민, 인도주의 난민,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송내동깨디오 시즌2 공개방송은 카렌족 친구들의 엔딩곡 '다섯글자 예쁜 말' 합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카렌족 청소년들의 합창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들에게 저절로 손 내밀고 싶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바라 시즌5
두 번째 공개방송

일하는 여성에게 듣는다

이정민
부천마을미디어 취재기자단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나른한 오후 송내역 무지개광장에서는 2023 부천노동존중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노동존중 체험 부스를 돌고 학교급식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등을 고발한 노동자들의 사진전시회를 보고 나서 3시가 되었을 때 어바라(어느순간바른소리하게되는라디오)의 두 번째 공개방송 '일하는 여성에게 듣는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바라는 평범한 여성 4인이 만드는 성평등 팟캐스트로, 팟빵에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5까지 진행되었고, 공개방송을 끝으로 어바라 시즌5는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김정은 요양보호사, 김민선 사회복지사가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진행자의 첫 번째 질문은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였습니다. 김정은 요양보호사님은 "80~90대 어르신들을 방문 요양으로 케어해 드리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이상 나아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질 때 속상하고 힘들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취급을 하며 어르신의 일이 아닌 가족들의 일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선 사회복지사님은 "센터를 위해서 하루 종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하는데 상사로부터 그것밖에 못 하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용객들이 악성 민원과 욕설, 폭언을 퍼부을 때 정말 회의가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존중문화제 같은 행사를 통해 존중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가는 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였습니다. 김정은 요양보호사님은 "일하고 있는데 딸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도 병원에 혼자 가라고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 진짜 마음이 아팠고 미안했다"라고 했고, 김민선 사회복지사님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춘기를 겪는 두 아이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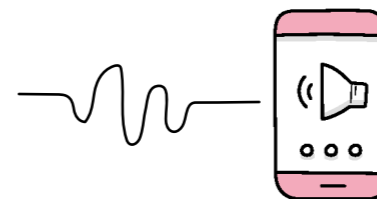
공개방송 중간중간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퀴즈가 나

갔습니다. 온몸으로 정답을 외치는 시민들과 어린이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전지전능한 손이 나에게 와서 평생 동안 무언가 하나를 책임지고 도와준다고 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였습니다. 이 질문에는 함께한 시민들의 대답도 들어보았습니다. 한 분은 "밥을 해주는 손이 있어서 돌아서면 해야 하는 밥을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분은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온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해서 참석자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 쟁, 게스트, 시민들이 함께 '일하는 여성들의 차별 가르침'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적으로 처우개선비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야", "사회복지사들은 악성 민원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악성 민원은 차별이야"를 무지개광장이 떠나가도록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날 어바라 공개방송은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블랙핑크와 쟁님은 "각자의 현장에서 차별에 당당하게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딪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말로 공개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봄엔 더 멋진 어바라 시즌6을 기대해 봅니다.



경기
마을
미디어
축제



1

도시이야기 페스티벌



4



5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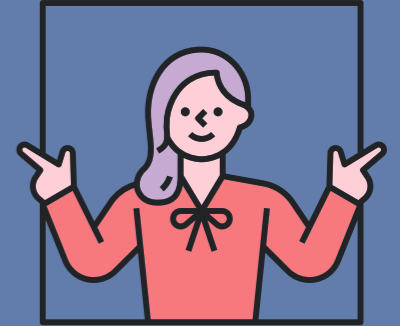


- 4 <상살미사람들> 확산 활동
- 5 <풀림회> 확산 활동
- 6 부천마을미디어 오리엔테이션

- 1 라디오 최우수콘텐츠 수상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 2 라디오 우수활동상 수상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 3 <소사FM> OBS 우수콘텐츠 선정



6



CHAPTER 05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소사FM

꿈과 힘이 솟아나는 소사FM

인터뷰 | 한운희, 황영춘, 천은정

2016년에 설립하여 8년 동안 소사 지역의 소식과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소사FM'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유튜브 채널이다. 소사본동의 오래된 마을미디어로 부천시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아이디어상, TBS <우리동네라디오>, OBS <경인마을라디오> 이달의 우수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소사복지관 내 소새이음스튜디오에서 한운희, 황영춘, 천은정 세 사람을 만나 소사FM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꿈과 힘이 솟아나는 소사FM' 플래카드가 인상적이네요. 소사동의 역사만큼 소사FM도 오래되었다고 하던데 소사FM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사동은 도농복합도시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구도심과 신도시가 합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부천시 소사권역은 뉴타운 재개발지구 지정 이후 2012년 말 재개발지구 해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성도 많이 약화되었죠. 외국인도 늘어나서 지역 내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가게가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2016년 부천마을미디어 첫 사업팀에 '소사FM'이 참여했는데 그때 소사복지관 라디오 양성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복지관 안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방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곳 소새이음스튜디오는 2020년에 건강보험공단 휴플러스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졌어요. '소사FM'은 마을미디어로서 마을공동체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주변 이웃, 노인, 어린이, 다문화 주민을 게스트로 초청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올해는 '한신종합시장 플리마켓' 공개방송을 진행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죠. 현재는 2팀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는 '뜨거운 언니들' 팀이 마을활동과 평생교육을 하는 활동가와 지역내 가수 등을 게스트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고, 넷째 주 목요일에는 '너나들이' 팀이 지역복지관 참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30초 자기소개', '감정을 말해봐' 등의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이나 장비 만지는 것은 복지관 과장님과 천은정 복지사님이 도와주고 4명의 팀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2회의 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녹음은 주로 이곳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콘텐츠 제목만 봐도 그동안 다양한 내용을 다뤘던 것 같은데 그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요?

그동안 180여 회의 방송을 했는데 직접 게스트도 섭외하고 큐시트도 쓰면서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를 섭외하는 것은 늘 힘들지만 막상 섭외가 되고 나면 저희를 믿고 참여해 주셔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게다가 게스트로 출연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방송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니 저변도 넓어지는 효과도 있지요. 이제는 소사본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으로 영역을 넓혀 가려고 해요. 게스트 중에는 전문가도 있지만 일반 시민 분들이 방송에 출연하면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사이 사이에 어르신들을 모셔요. 한 번 나왔던 분들은 1~2년은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더 모셔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역량을 기르기 위해 팀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팀워크가 좋지 않으면 티가 나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월 1회 코너 짝끼리 모여서 방송을 하다 보니 워크숍 때가 되어야 모두 만나요. 좋은 팀워크로 방송시간 15분 내에 임팩트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게 저희 숙제입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초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시간을 보고 적당히 끊어요. 전에는 복지관에서 편집을 맡아주셨는데 일이 너무 많고 저희도 미안해서 가능하면 편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편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게스트한테도 실례가 되니 최대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녹음을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공개방송을 하면 생생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나가니 이것도 아쉽긴 하죠. 팀원들이 처음엔 공개방송을 많이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TBS, OBS에서 상을 받으면서 우리 역량이 많이 강화되었다는 걸 느껴요.

방송활동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스튜디오가 없었을 때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여기 2층과 종합시장 사무실, 강사로 오셨던 분이 마련한 방송실 등으로 옮겨 다니며 집 없는 설움을 겪었어요. 지금은 소새이음스튜디오가 생겨서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이 평일에 진행되다 보니 직장 다니는 게스트 분은 휴가를 내거나 오전이나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오셔야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뜻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게스트 분들께 정말 감사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 게스트 분들께 맞는 출연료 등을 지원해드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상 죄송하죠.

소사 지역의 특징을 방송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소사마을의 역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사동에는 소새마을역사관이 있는데 주민들이 소사마을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한 것들로 꾸며져 있죠. 이곳에 가면 부천을 대표하는 복숭아, 천년은행나무, 우시장 등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는데 소품과 자료를 통해 옛 부천의 모습

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이 소중한 걸 모르고 그냥 지나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부천은 '복사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복숭아를 볼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옛날에는 광시장, 경인국도 등에 광주리 복숭아 장사꾼이 있었고, 학교 가는 길 골목마다 복숭아밭이 있었거든요. '소사FM'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초대해서 이런 지역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주 궁금증을 가지고 방송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 다시 새로운 공동체가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마을미디어 사업 지원이 운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지원금으로 장비도 살 수 있고, 게스트를 모실 때 선물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게스트가 일부러 시간 내서 오는 건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어요.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한 덕분에 타 지역 마을

라디오를 방문하기도 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받기도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처음 소사FM에 들어올 때는 정말 재미만을 생각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사 지역을 알아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소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사 지역에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을 키워서 부천시를 넘어 경기도 전역까지 뿌어 나가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죠. '꿈과 힘이 솟아나는 소사FM'이라는 슬로건처럼 저희는 아직도 열정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것이 소사FM의 계획입니다. 소사FM 방송은 유튜브에서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소사FM'으로 검색하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소사FM 유튜브
바로가기



희망샘마을라디오

희망이 샘솟는 마을 이야기

인터뷰 | 전명희, 최이선, 권유경

‘희망이샘솟는마을라디오(이하 희망샘마을라디오)’는 희망이샘솟는마을신문 주민기자단이 진행하는 라디오방송이다. 희망샘 주민기자단은 2009년 1월 오정구 7개동을 중심으로 오정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의 이슈들에 대한 주민 의견 모으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16년부터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희망샘마을라디오를 제작하며 미디어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고강선사유적지 공원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수주도서관 내 스튜디오에서 전명희, 최이선, 권유경 진행자를 만났다.



도서관 안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어서 색다르네요. 희망샘마을라디오는 어떤 곳인가요?

희망샘마을라디오의 역사는 2009년 오정종합복지관 동아리활동인 희망샘 주민기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연 4회 마을신문을 발행했는데 주민들이 종이신문을 안 보기 시작하고 배포도 힘들어서 신문 발행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 희망샘마을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문기사를 라디오로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현재 희망샘마을라디오의 팀원은 5명이고, 오늘은 허명애님과 이성숙님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두 분이 가장 오래된 멤버이죠. 활동한 기간은 멤버마다 달라요. 그동안 복지관의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팀 멤버인 최이선님이 녹음과 편집을 하고, 유튜브 채널에 짧게 동영상도 편집해 올리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종동 도시재생사업에도 지원해서 연 3회로 신문도 다시 발행하게 되었어요. 올해는 홀로서기에 성공한 해이죠.

라디오와 신문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방송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희망샘마을라디오는 원종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행사, 축제, 동네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전신이 오정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복지관과 매칭되는 일이 많아요. 독립은 했지만 복지관 소식도 꾸준히 알리고, 이 동네에 어울림 네트워크라고 열몇 개 팀이 있는데 그 팀들과 마을활동, 축제 등도 함께하고 있어요.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원종중앙시장 안에 ‘시골벽적 원종공간’이라는 거점 공간이 생겨서 그곳에서 공개방송을 두 번이나 했어요.



방송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자 맡은 코너대로 각자 대본을 쓰고 있어요. 방송을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 대본 쓰는 게 정말 힘들어요. 편집은 익숙해지면 괜찮는데 대본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면서 계속 쓰고 있어요.(웃음) 처음에는 대본을 읽는 방식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약간 수다 떠는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방송에 대한 애착은 전문가 못지 않아요. 월 1회 방송을 하는데도 녹음 끝나면 딱 하루만 해방이고 내내 방송 내용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지요.



진행자의 연령층이 다양한데 팀원 소개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생 겸이와 겸이모 권유경 님이 함께 진행하는 '겸이랑 이모랑 우리 놀러 갈까' 코너가 인기 상승 중입니다. 올해 시작해서 5회차를 했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겸이가 직접 퀴즈도 내고 이모와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잘해요. 권유경 님은 희망샘 주민기자단 초창기 멤버인데 잠깐 쉬고 작년부터 다시 들어와 침체되어 있는 희망샘마을라디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어요. '능소화의 만나보고서'는 능소화 전명희 님이 게스트를 직접 섭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자수첩을 펼쳐라'의 씨니 최이선 님은 기자수첩을 들고 발로 뛰어 정보를 전해주는 우리 팀에서 가장 열정적인 분이죠. 불량공주, 우남 님이 공동 진행하는 '사연 있는 마을라디오'는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은 사연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듣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진행자 분들의 열정이 느껴지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들어주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팟방에 가입하는 것을 귀찮아해요. 그래서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은 유튜브로 올려요. 그러다보니 유튜브 조회수가 더 높게 나와요. 어떤 방송이든 마찬가지로 저희 희망샘마을라디오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팀 간의 소통조차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각자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 회의시간, 방송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에너지가 모두 다르니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팀원끼리 허심탄회하게 서로 속내를 들어볼 자리를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마을미디어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연예인 못지않은 끼와 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에 주인공으로 모시기만 하면 다들 그렇게 할 얘기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공중파로 다 갈 수 없으니 마을미디어에서 이 분들의 이야기들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죠.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교류의 장입니다. 마을미디어를 한 번도 참여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참여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한 번 참여해 보면 정말 재미있어하세요. 다음에 꼭 다시 불러달라고 얘기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떤 희망으로 방송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원종역이 개통되어서 좋은 점, 불편한 점,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방송해서 저희는 OBS <경인마을라디오> 9월 우수콘텐츠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소규모라도 공개방송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더 자주 하고 싶어요. 저희 진행자들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사연을 전해 주고 재능을 발굴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담벼락을 타오르는 불꽃 같은 능소화 전명희, 그 불꽃을 지켜주는 씨니 최이선, 엄마품처럼 조카를 챙기는 겸이모 권유경, 부끄러움이 많지만 아무진 겸이, 불량하지 않는 불량공주, 순정파 우남 님... 식구가 많은 저희 희망샘마을라디오는 늘 희망이 샘솟아요!

희망샘마을라디오 팟방
바로가기



희망샘마을라디오 유튜브
바로가기



부천오원소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년의 힘

인터뷰 | 한준탁, 김성경



2019년 2월에 시작한 '부천오원소'는 부천과 청년의 이야기를 오디오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오원소'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의 앞글자 한 자씩을 따서 만든 이름으로 부천 지역에 애정을 가득 가지고 있는 진행자 3명과 음향을 전공한 엔지니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OBS <경인마을라디오>의 도민PD이기도 한 부천오원소의 한준탁 대표와 옥토끼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김성경 진행자를 만나 부천오원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부천오원소'를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2019년 하던 일이 힘들고 사는 게 딱딱해서 재미있는 것 하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근회(복동이)와 방송을 해보기로 얘기를 나누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부천문화재단 자료를 열심히 찾았어요. 검색을 하는데 미디어센터에 마을 미디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방송 장비까지 제 돈 들여 구입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무료로 쓸 수 있고 제작 지원금과 교육도 해준다는 데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두 달 정도 녹음을 하다가 음향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 알고 지내던 병철이 형(엔지니어)한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세팅만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병철이 형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후로 팀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궁금하네요.

'부천오원소' 자랑을 좀 하자면 마을미디어로서는 의미 있는, 한때는 1,000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지요. 지역의 맛집 소개도 하고 데이트 코스도 소개했어요. 맛집의 기준은 프랜차이즈는 안 되고 직접 가본 곳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부

천 청년들의 사연을 받아서 소개했는데 지금까지 38회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공개방송에서는 부천시장님을 모셔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팟빵 시작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엔 남자 3명이 진행했어요. 2020년 게스트로 출연한 옥토끼 김성경 씨가 올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새로운 멤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연 코너를 함께하게 되어 방송이 더 풍성해졌고, 리액션도 다양해졌어요.

방송에서 핵심으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희 대상은 주로 청년들이라 청년 취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복동이의 복덕방', 청년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푸른살', 역사 코너 '동진학당'이 있습니다. '동진학당'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사 강사 이동진 선생님과 함께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역사 코너 '동진학당'을 빼고는 모두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주간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청년의 나이가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청년 이슈에 대한 관심을 끌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천 지역에 청년활동가가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천오원소에 게스트로 불러서 서로의 활동을 알리고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방송에서 어떻게 풀어주고 있나요?

‘복동이의 복덕방’에는 갖가지 사연이 올라오는데 재미있는 게 저희 진행자 3명의 의견이 전부 달라요. 저희는 청년들의 고민에 답을 내주기보다 3명이 각자의 생각대로 이야기해요. 어차피 답은 본인이 내릴 거라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험에 빚대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녹음해서 송출하는 거라 바로바로 안 해도 되니까 80년대, 90년대 생 그 나이대 비슷한 사람에게 물어서 그 이야기를 전해 주기도 하죠. 청년들은 사연을 익명으로 보내는데 내용을 소개한 다음 커피 쿠폰을 드려요. 이 코너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연이 아예 안 왔어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여러 사연 중에 방송할 내용을 뽑아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가 겪었던 고민들을 그들도 겪고 있어서 진심으로 공감해 주려고 해요.

녹음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모두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엔 녹음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주말에 합니다. 평일엔 특으로 아이템 회의를 하며 사연을 고르고, ‘동진학당’ 주제와 질문들도 정리하고요. 자주 모이기 힘들니 한 번 녹음할 때 2~3회분을 녹음해서 시의성이 중요한 순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후에도 부천오원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하고 링크를 걸어서 피드나 스토리도 올리고 있어요.

그동안 활동해 오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마을미디어 활동하는 분들이 제일 염원하는 게 공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생업이 있으니 어려운 점은 역시 시간 부족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지금의 포지션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생긴다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쓰는 곳에 월세를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생업을 내려놓고 마을미디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부천오원소의 활동이 멤버들 각자에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길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마을미디어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도 삭제되고 센터들도 없어졌어요. 마을미디어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미디어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는 일이거든요. 마을미디어는 시민 각자가 마

이크가 되고 스피커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의 일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부천은 마을미디어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실 방송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지만 마을미디어를 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미디어를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바라’를 듣고 언어습관이 바뀌고, ‘뜰작마을미디어’를 통해 마을주인이 모여 숲을 조사하고, ‘모지리’의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부천시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제안한 정책을 올해 방송했는데 청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힘이지만 조금씩 우리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부천오원소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나요?

방송을 하면서 내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에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오원소의 초심은 “재미없으면 그만 두자”입니다. 우리도 재미없을 리 없고 들으시는 소장님들(*청취자 애칭)도 재미없을 리 없으니 오래오래 방송하게 되겠네요.(웃음) 2024년엔 노동, 인권 등에 대한 특집방송을 할 예정이고 오원소의 기록집도 만들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탁이형과 복동이와 옥토끼와 병철이형의 부천오원소, 파이팅!

부천오원소 팟방
바로가기



아빠육아수다 아육수

육아하는 아빠들의 즐거운 수다

인터뷰 | 김인수



2019년 3월 아이를 키우는 3명의 아빠들이 '아빠육아수다(이하 아육수)'라는 오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엄마가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아빠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있을까? '아육수'에서는 3명의 아빠들이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일기를 공개하는 등 재치있는 말솜씨로 육아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다. 청년방송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부천마을미디어 시민PD, OBS <경인마을라디오> 부천지역PD 등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해온 김인수 대표를 만나 아빠들은 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아빠들의 수다는 어떤지 이름부터 흥미로운데 '아육수'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 청년시절에 청년 3명이 '주간F4' 오디오방송을 4년 정도 진행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잘 키워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팀원 두 분을 만나게 되었죠. 홍성만 씨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고, 신중호 씨는 부모 성평등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만난 같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아빠인데 육아에 대한 생각이 서로 잘 맞았어요. 육아를 하는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쉽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으로 남겨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흔히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지만 그것들에는 내 목소리나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아이만 보이는 거잖아요? 영상을 보면 요뎨 참 귀여웠지 이것밖에 없는데 육아일기를 쓰게 되면 그 당시 나와 아이는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것들도 남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2019년부터 아이들의 일상과 육아를 주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방송되는지 궁금하네요.

방송은 1부 육아 정보를 알려주는 '이게 말이죠, 아육수 옆광고', '키즈퀴즈'와 2부 '아빠의 육아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의 육아일기'만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걸 녹음하고 동영상 찍고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팀원 아이들이 직접 퀴즈를 내는 프로그램 '키즈퀴즈'라는 코너도 만들게 되었어요.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예전엔 어린이집에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3~4명 정도는 보여요. 저도 첫째를 낳았을 때는 육아 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둘째를 낳았을 때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했어요. 확실히 육아휴직제가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 휴직을 하고 아육수 방송도 하면서 아이를 이





해하는 폭이 더 커지게 되고 아이와도 훨씬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니 부모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부부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들이 안 썼던 연차와 육아 휴직급여제도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러다보니 2021년쯤부터는 육아휴직제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고 현실화되기 시작했어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기에는 아직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육수는 육아를 하는 아버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겠군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사실 아버들이 모

이면 엄마들처럼 내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거든요. 아버들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지 그나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겨요. 그런데 아버들이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어요. 아육수는 그런 아버들을 위한 장이죠. 팀원들은 아육수 방송에 소개하기 위해서 아이와 새로운 추억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다른 아버들을 많이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아이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녹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19년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이제는 2주에 한번 만나서 한 번에 녹음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들 직장에 매여 있어서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할 때 따로 보기도 합니다. 조기축구회 하는 것처럼 한 달에 한두 번 일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죠. 모두 가정과 직장이 있기 때문에 녹음, 편집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하면 된다는 서로의 합의가 있어서 방송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마을미디어 사업 지원은 운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예전의 부전은 문화적인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미디어사업 지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참여자들에게 커피 쿠폰 같은 선물도 주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서 작은 것 같아도 큰 힘이 됩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기 위해 댓글을 다는 것 같아서 고정댓글을 다는 분들에게 퀴즈 나올 때 소감도 좀 달아달라고 방송에서 대놓고 부탁했더니 소감도 달리고 사연을 보내주는 분들도 생겼어요. 처음엔 댓글 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장비는 콘텐츠 지원비용을 모아두었다가 삽니다. 지원받아야 할 것은 많지만 꾸준히 선물값만 지원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니 없어지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약간의 강제성이 생겨서 방송을 지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게을러져서 잘 안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마을미디어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희수에 주목하는 유튜브와 달리 마을미디어는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미디어 사업은 구독자 수보다 참여자 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댓글과 조희수는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가능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구독자에 신경 쓰고 전문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면 날아가는 것들이 많죠. 마을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참여자 스스로 미디어의 주체가 되어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가면서 저희 스스로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중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어린이는 양육자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죠. 아이를 키우는 아버들이 먼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미디어를 대하고 가족과 관계를 쌓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아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잘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아육수를 운영하면서 대화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미디어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 아이와 추억을 만들고, 육아 고민도 나누고, 아내와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아버들이 양육자로서 끊임없이 육아, 교육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책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빠육아수다 팟방
바로가기





뜰작마을미디어

역곡 뜰에 피어난 시민의 플랫폼

인터뷰 | 나유진

뜰작마을미디어는 2019년 3월에 설립되어 ‘역곡 핫피플’, ‘역곡핫플레이스’, ‘역곡핫플레이’의 역곡 핫P를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팀원들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역곡의 마을 소통 장소인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이하 뜰작)에서 뜰작마을미디어 멤버인 나유진 씨를 만나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들어보았다.

뜰작마을미디어는 어떤 곳인가요?

뜰작마을미디어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영상제작 팀입니다. 팀원은 저를 포함해서 현재 6명인데 마을 안에서의 변화와 동향을 각자 촬영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 미디어 제작의 기초부터 배우면서 시작했고, 마을 미디어 사업에서 지원하는 전문가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여러 가

지 활동을 찍다 보니 콘텐츠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작년에 하나의 흐름을 잡기 위해 역곡에 있는 ‘핫피플, 핫플레이스, 핫플레이’를 알려 준다는 뜻의 ‘역곡핫P’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역곡에서 활동하는 주민들, 역곡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역곡의 공간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지만 지역이라는 것이 담장이 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 중에는 간혹 역곡을 벗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동안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숲시민모임, 시민단체 활동, 인권 활동, 제로웨이스트샵 ‘바람가게’ 활동 등 지역 내의 다양한 이슈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환경 관련 활동도 종종 업로드하고 있는데 도시숲시민모임에서 주최한 ‘우리 동네 큰나무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생태환경전문가가 진행하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숲시민모임은 사라질 뻔한 나무의 보존 가치를 찾아내고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단체이죠. 또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른 마을미디어 팀과 이곳 뜰작에서 ‘쓰레기 없는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비원콘서트 라이브 중계 및 간담회’를 바람가게

에서 진행한 적도 있고요.

팀원들과의 교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팀원 각자가 영상에 담고 싶은 내용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율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3편, 적게는 1편을 각자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공동기획을 할 때는 영상 편집을 잘하는 분이 작업해서 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역곡 안동네라고 불리는 동네가 개발된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 콘텐츠를 담당하고 촬영합니다. 카메라가 더 필요하거나 짐을 들여줘야 할 상황, 그리고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팀원이 보조로 도와주러 갑니다. 영상을 찍겠다고 한 분이 이 영상의 책임을 맡아서 가편집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면 영성하지만 팀원들이 의견을 내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월 1회 정기모임을 했는데 올해는 직장에 취업한 분들이 많아서 주로 카톡방이나 줌으로 얘기를 나누었어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라 영상 편집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팀은 별도의 장비 없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





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도 없고 구입해 놓고 돌려쓰기에도 불편하고, 대여를 해도 불편해요. 그리고 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좋잖아요? 폰으로 찍으니까 사실 장비 비용은 별로 들지 않아요. 하지만 폰으로 찍다 보니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음성을 잘못 잡기도 해요. 잘하려고 하면 음성을 따로 따야 하는데 전문가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워 영상의 퀄리티 문제는 늘 고민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얼굴이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팀원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아직까지는 개별적으로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공동기획을 하고 편집에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팀원들이 직장인이라 시간이 부족해서 영상 작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과 접점을 찾아보려고 우리 동네 산책길을 찍어 보내는 영상 공모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생겼다고 하는데 마을미디어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부천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마을미디어가 있어요. 부천마을미디어 사업이 시작된 지도 8년이 되었고, 올해는 많은 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하면 부천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마을미디어 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는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니다. 이런 것을 방송국에서 와서 모두 촬영할 수 없으니 마을미디어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을미디어는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고 있고 소통과 기록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뜰작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뜰작마을미디어는 역곡의 핫P와 재개발로 사라져 가는 것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보완해서 단순한 아카이빙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흐름과 다양성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이슈를 다루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뜰작마을미디어 유튜브 바로가기



모지리

빽빽한 도시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이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며 흥을 즐기고, 예술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보람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의 모습을 영상에 더 많이 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록물을 남겨보고 싶습니다. 과정을 담는 것을 지향하는 저희 단체는 결과나 행사 중심이 아닌, 동기, 과정, 성찰의 동선이 주는 감동을 담고 싶습니다. 느티나무 음악회를 라이브로 두 번 열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지리 마을카페 뒷마루에는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신록이 우거진 나무 아래서 울려 퍼지는 다양한 음악들은 바람을 타고 온 동네에 흘러들었습니다. 해금연주자의 연주는 우리의 마음을 일렁이기도 했고, 바이올린의 선율과 피아노의 조화로운 음율은 우리 마음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녹음된 악기의 소리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송내초등학교의 유치원생들이 관객이 되어 주어 음악과 리듬에 맞추어 스스로 몸을 움직이며 시간을 누리는 광경은 매우 감동스러웠습니다.



대표 콘텐츠 | 20230607_정오의 느티나무 음악회 LIVE



음악놀이터

확산 활동으로 저희만의 음악회를 기획하여 공연을 두 번이나 올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주회는 음악놀이터 팀의 이상결 성악가와 외부 전문 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하였고, 두 번째 연주회는 심태연 피아니스트, 이상결 성악가 그리고 마을의 아마추어 연주자 두 분과 비행출라 팀의 연주 등으로 좀더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연주회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인원이 4명뿐이어서 방송은 원활하였으나 확산 활동 같은 연주회를 하는 경우 분업이 어려웠습니다. 전문 영상, 음향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신규 대원을 더 영입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좀더 분업화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화로 조성진 편을 팟캐스트로 녹음했는데, 마을미디어 측에서 솟츠로 만들어주어서 조회수가 1000회가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떠들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파급력이 클 줄이야! 마을미디어가 영상, 음원 작업이다보니 비용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밤낮없이 연락을 드려도 기분 좋게 응답하는 노은지 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 콘텐츠 | 가을날 느티나무 음악회



어바라(어느순간바른소리하게되는라디오)

저희는 부천지역에서 '성평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유일한 마을미디어로서 평등언어 안내, 성평등 콘텐츠 추천, 이슈를 젠더 관점으로 다시 보기, 한 명 한 명의 삶을 평등과 차별을 중심으로 재해석하기를 통해 일상 속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평등 언어를 주제로 OBS <경인마을라디오>에 2회 참여하였는데 8월 우수콘텐츠로 선정되어 경기마을미디어 축제에서 다시 한번 평등언어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와 토론을 통해 감수성을 키워나가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마을미디어 팀들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많은 지지와 응원이 됩니다. 네트워크 모임을 여러 방향으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게스트 섭외 및 자료 조사 과정에서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체복 혹은 단체기념품 제작을 위한 예산도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대표 콘텐츠 | 2022 교육과정 개정논란&임신중단약 도입 무산 그 후



다문다감2023추진단

이번 사업을 통해 기록과 전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봉사단, 그리고 다문화 기관이 행사와 캠페인 등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마을과 주민에게 미디어 작품으로 감동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주관 토크콘서트에서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이 모여 마을살이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었고, 다문화 이주민과 선주민의 구분 없이 마을축제를 만들어 가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 등을 공유하며 이웃으로서의 친밀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사업에 대한 몰입도가 상승하였고, 타 주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증가하게 되어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다문화 네트워크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연결하다보니 미디어활동의 포커스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다문화 관련 주제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대표 콘텐츠 | 다문다감2023의 발자취



글한스폰

마을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면서 루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을주민들과 소통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솔안마을기록단 소개 영상을 촬영, 편집하는 동안 예전의 정겨운 동네가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 이 마을을 시청자분들도 공감해 주었습니다. 미디어가 소통의 창이라는 게 새삼 느껴져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숏츠에 익숙한 사람들을 5분이라는 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춘다보니 내용이 더 늘어지게 되었고, 시청률을 올리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팀원들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구체적인 회의 등 콘텐츠 질은 높이고, 제작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개선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멘토링이 아닌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장기적인 멘토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콘텐츠 | 솔안마을기록단을 소개합니다



팡팡필름

부천의 장소들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개하고 알릴 수 있어 보람 있었습니다. 앞으로 촬영 장소 섭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숨은 장소를 의미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촬영 기술도 향상시켜 보기에 좀더 편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미와 자막이 어우러질 수 있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쉬운 점은 다른 마을미디어 팀들과 더 많은 네트워킹을 하지 못한 점입니다. 마을미디어의 새로운 단체로서 기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트워킹 중에 모르는 이야기가 많았고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해도를 키우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미디어 팀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 콘텐츠 | 수피아 편



숲사랑해

이번 사업은 동영상 콘텐츠의 소비자에서 제작자로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육기간 중 마을행사가 있어서 교육 내용을 접목하여 콘텐츠를 제작해 본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율학습을 통해 수업 내용을 좀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주 1회 교육이라 배운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더라도 주 2회 집중교육과 성과물 제출에 대한 강요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배우고 참여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표 콘텐츠 | 나는야 나무의사



송내동계디오

연합방송, 강사 초빙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개방송 '월경페스티벌', '카렌족 친구들의 이야기 카톡!'을 진행하며 송내동계디오가 마을미디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양적 성과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콘텐츠 홍보 방법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많은 구독자를 유치하였으나 실 청취자 수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추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방송 및 편집 시스템 개선, 잦은 외국인 패널 출연을 고려한 MC 진행 개선, 배경음악·효과음 등을 활용한 예능적 요소 첨부, 1·2부 구성 시 전(前)회차 요약 송출 등 시민 및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104~106화 <평생을 육아하며 살고 있습니다-발달장애 자녀 보호자들의 이야기 편>이 기억에 남습니다. 발달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 보호자들이 출연하여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슈가 되었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발사건을 발달장애인 부모의 시점으로 다루어 해당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강사비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강사 섭외 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강사-센터-단체 간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각 방송, 콘텐츠에 대해 마을미디어센터에서 주의깊게 관찰하고 적극 지원해주는 점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 콘텐츠 | 발달장애 자녀 보호자들의 이야기(1)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올해 저희 팀은 우리 이웃과의 갈등을 주제로 다룬 '총간소음'으로 경기마을미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콘텐츠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OBS <경인마을라디오> 10월 우수콘텐츠로도 선정되어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콘텐츠 주제와 내용이 청취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쉬워서 부담없이 재미를 느끼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라디오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멤버들과 회의를 하고, 자료를 검색하여 대본 창작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녹음 후 장시간의 편집과정을 거칩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완성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콘텐츠 주제 선정과 대본수위 조절, 편집 작업 등이 어려웠고, 시간상 배우들 연습과 편집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 퀄리티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콘텐츠의 주제를 좀더 다양하게 다루고, 재미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대표 콘텐츠 | 총간소음



PYC

이번 사업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계획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2022년 유튜브 라이브, 2023년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청취자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힘썼으나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회의를 통해 이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업로드하면서 청취자들이 저희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과 염려가 있었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가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PYC 방송을 홍보하는 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의견 중 지적받은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음 모니터링에서 칭찬을 받아서 부듯했습니다. 구성원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녹음을 진행했는데도 매끄러운 콘텐츠 제작과 깨끗한 음질의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천미디어센터의 장비 대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당 지원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콘텐츠 | 내 인생 공사



상살미사람들

마을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처음 접하다보니 기술도 부족하고 콘셉트와 아이템을 잡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결과물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시니어들이 많으니 각자의 인생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각자의 활동과 의견을 모아 주민들과의 소통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습니다. 제주도 공정무역 행사에 참여하여 부천의 상살미사람들을 알리고 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념식수를 찬조하고 싶어 제주도를 헤매고 다니다 우여곡절 끝에 화훼업체를 만나 기념식수를 거행하고 조합원들의 라인댄스 공연과 합창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형을 신청하여 진행했는데 내용도 좋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향후 마을라디오를 진행하고 싶은데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핵심 멤버들이 마을미디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함께 활동하려는 모티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한다면 발전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노은지 선생님과 이희상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관계자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 콘텐츠 | 사회적경제학 북콘서트와 상살미사람들 가을대축제



책!콕!톡!

부천시민작가인 팀원들의 책을 함께 읽고 소개하며 독자이자 작가로서의 경험을 모두 해볼 수 있었고, 서로 더 잘 알고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민작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책을 쓰게 된 계기부터 책을 완성하기까지 힘들었던 점 등 자신의 책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민작가로서 두 번째 책을 낸 분들의 소식, 상을 받은 분들의 소식도 함께 전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청취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책을 꼭 읽지 않아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 팀의 콘텐츠 방향성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천시민작가들의 책을 소개하고, 단순히 책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인일저 책쓰기 강사로 활동하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책 만들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책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음실 장비 연결선이 불안정하고 방음이 잘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녹음실 장비 좀 팟트랙으로 교체되면 좋겠습니다.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공개방송 때 가지고 나가는 장비가 같으면 공개방송을 준비할 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합방송 팀을 꾸릴 때 단체의 의견도 미리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북페스티벌 축제에서는 무대에서 공개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콘텐츠 | 공개방송_북페스티벌



부천사람들

춘의동 197번길 사람들 모임에서 '춘의동 영상 아카이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3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춘의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체 영상으로 아카이빙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춘의동 197번길 네트워크 활동들이 공모전과 연계되어서 10월~11월에 집중 개최되어 급하게 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 방향을 잘 잡아서 부천마을공동체를 알리고 부천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과를 꼽자면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에 대한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하자고 말만 했지 사실 먹고살기 바빠서 쉽지 않았는데 꾸준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일을 하며 살을 맞대는 과정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사업부의 부천마을미디어 사업 지원은 정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이제 부천마을미디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함께 인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면 합니다.



대표 콘텐츠 | 꼬원197 1주년 기념 반나절 분식&파티



부천시니어멘토스쿨

사랑은 나이 들지 않듯이 영상을 제작하는 부천시니어멘토스쿨 회원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은 78세입니다. 목표, 꿈, 도전이라는 단어와 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나이이지만 팀원들은 아직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도전이라는 단어에 설레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들이 모여 마을미디어 콘 텐츠 여덟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웰다잉(웰빙)이라는 주제로 회원들 각자 한 작품씩 제작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획과 실력이 부족하여 어 려운 점이 있었지만 미담, 웃음, 희망이 넘치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해 서 제작하고 싶습니다.



대표 콘텐츠 | 석빈이를 찾아서 (feat. 이순희)



플림회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된 촬영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고, 미디어 제작물의 완성도가 성장했습니다. 밀도 있는 결과물을 위해 더 집중하지 못했고, 기획, 자료 조사 등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시간과 인력의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촬영 방향은 좋아졌으나 아직은 모르는 것 이 많아 더 배워야 하는 단계이며, 한 가지 아이템을 기획하고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개인전 촬영과 영상을 만들면서 제작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 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면서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도전해보았다는 점 이 뜻깊었습니다. 주인공의 내면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공감 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표 콘텐츠 | 제2회 김현좌 개인전



유한대PMC

이번 사업을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촬영부터 편집까지 경험하고 영상 편집을 독 자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장소 촬영이 익숙지 않아 인터뷰를 할 때 해매기도 했지만 15편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구성원 전체가 촬 영, 편집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무리 작업을 한 사람이 감 당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 부담도 되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정기 모임에서 영상 제작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드론 촬영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부천평생학습센터 홍보영상 콘테스트에 팀원 2명이 지원했는데 우수상과 특별상을, 제1회 시니어영화제 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모니터링 피드백이 조금 빨리 되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콘텐츠 | 부천의 부리를 찾아서(고강동선사유적공원 외)



키즈공연탐험대

어른 위주로 참여했던 기존 방식을 넘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공연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녹음과 촬영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콘텐츠 회의는 전화나 화 상회의를 통해 할 수 있었지만 각자 직업이 다르다 보니 오프라인 일정을 맞 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 센터에서 편집, 촬영 기술을 교육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 한 공연의 선택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후 하나의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 영상, 글 등 참여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콘텐츠 | 인천에 아시테지가?? (with 이든이네)



중동사랑시장

중동사랑시장은 전국에서 2개를 선정하는 '등대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사업에 선정된 시장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중 동사랑시장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통시장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상인 분들에게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원이라 같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점이 어렵긴 하지만, 단순한 상품 판매의 구조가 아니라 상품을 미디어로 홍보하여 판매구조로 디지털을 입혀 보려는 노 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대표 콘텐츠 | 장말축제



부천FC1995 대학생 마케터 루키즈

이번 사업에서는 참여 문익이 늘어났습니다. 선수들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고 함께 게임을 뛰어본 경험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참가자들을 보면서 부듯했습니다. 활동 내내 완벽한 상황에서 진행된 적이 없었던 것 이 아쉽고, 마을미디어와 구단의 콘텐츠나 활동의 결이 조금 다르다고 느 끼었습니다. 향후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할 땐 좀더 마을미디어와 어울 리는 콘텐츠를 기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한 축구 클리닉 내용 이 아니라 재미 요소와 스토리텔링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좀더 고퀄리티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활동 기간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멘토를 매칭해 교육이 아닌 1:1 멘토링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대표 콘텐츠 | 여성 풋살팀 고민 해결 위해 출동!



상2동재능나눔단

이번 사업을 통해 부천의 공원과 동식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담고 싶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좋은 영상제작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온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완성도 높은 영상제작이 어려웠던 것이 아쉽습니다. 영상제작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 우리 주변의 공원이나 동식물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양한 삶에 대해서도 카메라에 담고 싶습니다. OBS (꿈꾸는 U) 공모에 선정되어 인터뷰도 하고 경인 TV에 방영된 것, 제1회 부천시니어영상제에 '나는야 나무의사'가 우수상에 뽑힌 것, 도시이야기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부천 시민들과 친환경순돌이로 '순사랑해' 활동을 알렸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미디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잘 모를 때 도움을 주는 시민PD와 하셋별 선생님, 또 담당자인 노은지 대리님의 도움이 있어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미마을미디어

이번 사업으로 내용 구성에 대한 교육실습과 미디어 녹음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팀 구성 초기단계에 팀원들과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고, 주 1회로 진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많이 아쉬웠습니다. 개국 방송 이후 팀원의 개별 방송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마을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마을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OBS (경인마을라디오)에 참여하여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것이라는 용기를 얻었으며 방송의 의미를 알게 되어 본 팀원들의 방송 제작 욕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합방송을 통해 다른 팀의 방송활동에 참여하며 용기를 얻고 서로에게 지지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들소리

도시이야기 페스티벌 부스에 참여했는데 부스 세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진땀을 뺐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도 같이 배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팀은 매주 모임을 하고 있으며, 영상 외 전시 기획 및 여러 분야와의 콜라보를 준비 중입니다. 실습이 빨리 끝나서 아쉬웠고, 부족한 부분을 더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 공모전 일정을 먼저 알려주시면 미리 주제에 맞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사FM(체험형)

부천마을미디어 사업 참가로 마을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소사본동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었고, 10회기의 교육으로 지역주민들의 미디어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교육 이후에도 마을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지역주민이 생겼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 교육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마을라디오 양성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오퍼레이팅 교육을 진행하여 마을라디오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마을라디오 양성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시흥FM에 방문, 게스트로 참여하며 다른 마을미디어 팀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 배우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소사FM 소새이음스튜디오에서도 직접 수료 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이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천 시민미디어센터를 통해 강사를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강사님 파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새날학교

미디어에 익숙하지만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기에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미디어에 대해 더욱 깊이 접하게 해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친구들이라 보니 교육 시간 동안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으로 미디어를 배울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사골시낭송예술단

저희는 시를 낭송하여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이 막연했는데 교육을 통해 필요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시와 배경, 음악 등을 입혀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있었습니다. 생소한 것들이라 습득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여 부천 작가들의 시, 수필, 소설을 영상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대표 콘텐츠 | 기다린다는 것에 대하여 / 정일근



에코파트너

미안마 카렌족 난민 친구들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마을 환경활동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부천자원순환센터에 방문해 부천의 많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스티로폼이 다시 재활용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깨끗이 스티커를 제거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등 환경을 생각해 주는 마음들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 촬영을 위해 인터뷰 글을 작성하고 연습할 때도 많이 생각하며, 환경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습과 촬영 스케줄 시간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한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들과 한글수업하기도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잘 모르는 편집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았더라면 소리가 잘 들어갔을 텐데 현장에서 갑자기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촬영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환경활동가들을 만나 영상을 찍으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무엇인지 배우고 영상 촬영과 편집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배움은 학생들의 학교 브이로그 수행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환경브이로그를 찍어서 제출했더니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으며 아이들은 스스로 대견해 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그들끼리만 소통하면서 생활했는데 인천지역의 한정된 곳이 아닌 부천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어 이제는 제법 한국인으로 정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송내동깨디오 팀, 부천새날학교와 같이 연합방송을 한 후 미안마 친구들의 일상을 듣고 싶다고 해서 다시 공개방송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여서 스스로 대본을 쓰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태국난민촌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으면서 한국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알게 되었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래교육센터에서 우리마을 배움터 홍보를 위한 교육자원 솜폼콘테스트대회에 아이들이 경기 글로벌센터 소개하는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여 공모했는데 미래인재상을 받게 되어 자신감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부천마을미디어 사업 덕분에 이런 성과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콘텐츠 | 부천자원순환활동가를 만나다



휴놀다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기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세 작가 중 2명은 미디어를 활용해 보거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었지만 매사에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짝어만 주었던 영상작업을 직접 배우고 영상편집을 연습하러 다양한 곳을 함께 다니는 모습은 분명 새로운 설렘과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미디어 작업이 시작되면서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고 삶의 또 다른 활력이 되었습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편집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일상의 작은 변화 덕분에 예전보다 할 일이 많아져서 힘들고 바쁘지만 좋다고 합니다.

영상이 끊어지기도 하고 자막이 우리가 쓰는 어투와 뭔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부분과 아직 미숙한 부분이 뒤섞인 현재의 작업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작업물을 함께 보는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드함은 도예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했을 때만큼이나 컸습니다.

휴놀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상편집이 업이 아닌지라 제작자의 작업물을 어디까지 수정해야 할지 매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대로 올린 것도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수정이 많이 필요한 영상 편집은 선생님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올해 배우고 연습한 영상작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50%를 혼자 진행했다면 내년에는 60~70%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연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주로 본인 셀카 버전으로 도예작업을 촬영했는데 내년에는 타인의 작업을 짧게 찍고 편집하는 형식의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도자기는 갈라지거나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하다 보니 영상은 5분 내외지만 도자기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두세 달이 걸리다 보니 영상의 끝부분에 도자기를 넣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도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영상도 있었는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작업하면서 아쉬웠습니다. 도자기가 굽기 전에 자꾸 갈라져서 양병창 작가가 하나의 컵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4개를 두 달 동안 만들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시작할 때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바지 영상 편집과 업로드에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대표 콘텐츠 | 커피원두를 새긴 도자우산꽃이_신용섭 작가의 작업영상





CHAPTER 06

사업소개

참여단체

모니터링

활동리포트

참여후기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지역미디어센터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OBS FM <경인마을라디오>

OBS <경인마을라디오>는 고양,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성, 화성의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시민의 참여로 제작해온 프로그램입니다. OBS FM 99.9MHz에서 토요일, 일요일 16시부터 1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송출되며, 부천마을미디어 활동가와 시민제작자는 총 12회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방송일	시민제작자	세부주제
1	4월 1일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 준비 모임 - 1년차 단체들의 이야기
2	4월 2일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	부천마을미디어네트워크 준비 모임 - N년차 단체들의 이야기
3	5월 13일	소사FM	돌아보니 아름다운 삶이었다
4	5월 14일	소사FM	🏆 어린이를 위한 부천의 '마루식당'
5	6월 24일	글한스폰	메리포핀스와 부천의 독립서점 '글한스폰'
6	6월 25일	PYC	청년들의 해외여행기
7	8월 5일	키즈공연탐험대	방학을 부탁해!
8	8월 6일	어바라	🏆 평등한 언어생활
9	9월 16일	희망샘마을라디오	🏆 원종역이 생겼어요
10	9월 17일	원미마을미디어	원미마을미디어가 개국합니다
11	10월 14일	어바라	평등한 언어생활 II
12	10월 15일	플레이스트리밍라이프	🏆 라디오드라마 '총간소음'

🏆 표시된 방송은 OBS <경인마을라디오> '이달의 우수작'으로 선정된 방송입니다.

우수작
보러가기



소사FM



어바라



희망샘
마을
라디오



플레이
스트리밍
라이프

OBS FM <경인마을라디오> 현장



